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자 운영실태 조사

신호준 · 구원희 · 백민호*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안전경비인력)의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자의 업무, 배치,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요

문화재는 국가 민족문화의 상징가치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자 운영 실태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제도 검토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방재관련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적 방재환경을 조성하려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에 안전경비인력을 24시간 감시체계 형식으로 도입하였고, 화재를 비롯한 어떠한 훼손이라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의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Table 1은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Outline of Arrangement-Business for Safety-Security-Officers in Cultural Properties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11년 기준 - 지정 97개소, 문화재 127건)
배치기준	주간 1명, 야간 2명을 배치의 기본 원칙으로 하되, 주·야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형편이나 지역별 관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할 수 있음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내·외부 시설 방호 - 문화재의 도난방지 및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에 대한 점검 - 화재 요소 및 문화재 훼손요인을 점검 - 문화재 일상관리(청소, 제초작업) 실시

출처 : 문화재 방재력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재청(2012)

3.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자 운영실태 분석

국보, 보물로 지정된 158개(숭례문화재로 인한 복원공사로 조사 미실시) 중요목조문화재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자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안전경비인력 배치 인원 현황은 주간과 야간 모두가 2명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안전경비인력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은 곳도 주간에 3개소, 야간에 4개소가 존재하여 문화재가 외부로부터 위험한 곳도 존재하였다.

안전관리경비인력의 연령 현황은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38%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이상, 30대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50대 이상이 80%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안전경비인력사업의 경우 문화재 특성과 전체 부지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비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국보, 보물로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에만 배치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인터뷰 결과 시 안전경비인력이 대부분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왔으며 업무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Figure1, 2는 안전경비인력의 배치인원과 연령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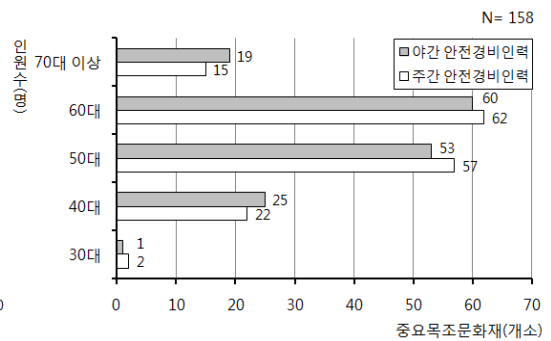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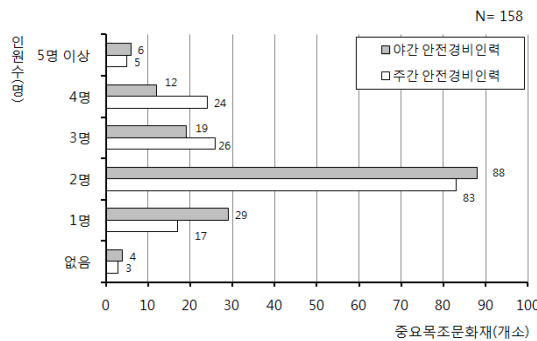


Figure 1. Disposition of Safety-Security-Officers Figure 2. Age of Safety-Security-Officers

4. 결론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자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다. 2008년 승례문 화재 이후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곳에 선임되어 있었고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내 현장에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대부분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60대의 연령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이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인터뷰시 교육 및 훈련도 1년에 2회 정도로 형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인원의 증가,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문화재청(2012), 가칭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마련 연구보고서
2. 문화재청(2012), 문화재 방재력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